

“남녘땅에서 행복한 첫 한가위를”

김문수 경기도지사, 하나원 방문 격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올 추석에도 어김없이 보고싶은 가족들과 정겨운 한가위 인사를 나눴다.

가족은 다름 아닌 탈북자 교육시설인 안성 소재 하나원의 '새터민'들. 추석은 물론 설날에도 빠짐없이 위로방문 해온 곳으로 추석연휴를 앞둔 21일 민사를 제치고 달려갔다.

시설 원장도 김지사가 교육시스템 및 시설 등 운영현황을 훑어 알고 있어 지난 번 방문 때와 달라진 건물 증축이나 교육생들에 대한 처우개선 현황만 간단히 브리핑했다. 하나원 교육생 새터민들은 철저한 보안 속에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간다.

김지사는 최근 하나원 내에 현

금 자동저금기 1대가 새로 들어와 새터민들이 입출금 교육, 또 점차 늘어가는 교육생들을 보다 알차게 교육시키기 위해 증축 계획중인 사육신축 등 현황들을 브리핑 받았다.

이어 김지사와 교육생들은 서로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김지사는 “새로운 땅에 정착해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각오로 교육에 임해주시라”며 “북녘 각지에서 모두들 너무나 힘들게 오셨는데, 비록 외출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명절 추석을 마음으로나마 행복하게 즐기라”고 격려했다.

이에 교육생들은 “북쪽에선 추석을 하루만 쉰다”며 북의 추석을 설명하고 “가족들도 많이 생각 나지만 지사님을 비롯해 여러 분들의 많은 도움에 감사하며 지내겠다”고 답했다.

김지사는 특히 과거 경기도 땅이었던 개성 출신인 한 새터민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김지사는 “저도 개성에 몇 차례 가봤는데 그곳은 과거 경기도 땅이고, 지금 경기도에는 이북경기도민회가 있을 만큼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교육 잘 받고 대한민국에 잘 적응해서 나중에 다시 만나도록 하자”고 어계를 다독였다.

김지사는 새터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중전화 카드와 라면용 주전자 등을 모두에게 선물하고, 하나원 경비대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올 추석에도 어김없이 탈북자 교육시설인 안성 소재 하나원의 '새터민'들, 추석은 물론 설날에도 빠짐없이 위로방문 해온 곳으로 추석연휴를 앞둔 21일 민사를 제치고 달려갔다.



이미숙무용단이 9월20일과 22일에 중국 단둥시 문화공과 금강산공원에서 단둥시 가무단과 조선족 예술단과의 합동공연을 개최했다.

이미숙무용단 단둥시 공연 큰 호응

김문원 의정부시장, 이학세 의정부시의회의장 참석

이미숙무용단(단장 이미숙)이 9월20일과 22일에 중국 단둥시 문화공과 금강산공원에서 단둥시 가무단과 조선족 예술단과의 합동공연을 개최했다.

문화공에서의 공연은 단둥시 가무단과 함께 마련한 공연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빠른 템포의 음악과 춤으로 단둥시민들에게 감동을 선물했다.

특히 무용단과 비보이와의 합동무대로 마련된 '동방의 빛, 한국의 소리'라는 작품을 통해 한국 국민의 진취적 기상과 힘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9월22일 단둥시 금강산

공원에서 개최된 단둥시 조선족 민속유원회에서 조선족들과 합동공연을 마련해 조선족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전통예술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공연장에는 60~70년대 입었던 한복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으며 '백의동포는 동방례의 민족이다', '민속절을 전통명절로 이어가자', '겨레의 넋이 살아 숨쉬는 민속절', '너녀야 형제고 모여야 동포다', '민족은 민속으로 영성한다' 등의 현수막을 내걸어 민속절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미숙무용단의 이번 공연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되었으며 단둥시 정부와 조선족의 협조로 마련된 단둥시와 의정부시 간의 국제교류는 물론 조선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미숙단장은 “단둥시 가무단과의 합동공연도 의미 있었지만 조선족과의 합동공연은 민족애를 느낄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공연 뿐만 아니라 조선족들에게 민족의 전통예술을 전수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상생발전 위한 공동 마케팅 추진

경기관광공사-인천관광공사, 업무협약 체결

“이제부터 경기도와 인천시 관광을 동시에 즐기세요.”

경기관광공사(사장 임병수)는 인천관광공사(사장 최재근)와 지난 9.20일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경계를 넘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와 경기도 인근 타 시·군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계·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동협력 사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자체 지원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 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공동 협력사업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각 지역 우수 관광자원 연계홍보 및 상품개발, 공동 홍보물 제작 및 광고, 관계자 대상 캠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마케팅을 강화해 관광객들이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임병수 경기관광공사 사장(왼쪽)과 최재근 인천관광공사 사장(오른쪽)이 MOU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음악극 워크숍, 전통음악극 춤사위 등

의정부예술의전당은 민의 문화향유 욕구 충족과 문화 예술활동 참여를 통한 창의적, 문화적, 시민의

성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0월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성들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9월 프로그램을 가족과 함께하는 나라는 주제로 9월14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가족캠프를 가졌다.

‘가족과 함께 하는 나’ 가족캠프 마쳐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박2일간 캠프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여성들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9월 프로그램을 가족과 함께하는 나라는 주제로 9월14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가족캠프를 가졌다.

대원여객과 평안운수가 후원하여 이루어진 가족캠프는 장애여성 및 가족 등 50여명이 참여한 안동 일대 관광 및 체험활동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첫날은 안동화회마을을 관광 후 한지공예 전시관에서 소원성취 손거울 만들기 및 화회탈 목걸이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도 가졌다.

둘째 날에는 경북삼립과학박물관

과 안동전통음식박물관 견학을 한 후 안동의 대표적 음식인 안동찜닭을 시식하는 등 즐거운 가족캠프 행사를 마쳤다.

한편, 대원여객과 평안운수는 작년에도 외출 경험이 적은 중증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70여명을 초청해 강원도에서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 가족간의 유대관계 및 문화여가 활동의 기회가 적은 장애여성들에게는 가족과 대화의 시간과 가족간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화요일과 토요일 운영하는 청소년 음악극 워크숍은 음악극을 통해 만나는 종합예술의 세계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

갓가지 소품과 대사를 통한 연극적 언어와 다양한 장단 및 소리를 통한 음악 그리고 몸짓 통한 표현 방법과 배우로서의 발성, 호흡 등 공연예술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함께 음악극을 완성하게 된다.

특히 양주별산대놀이를 소재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또한 10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운영하는 전통음악극 춤사위와 가무교실은 우리 춤의 동작과 선율을 익히며 주무들의 열정과 소질을 개발하여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우리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며, 춤동작의 이론과 실기를 병행, 우리춤사위와 전통 가무악에 대해 배우게 된다.

태평무와 진주교방가거리춤으

로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 지정된 이미숙 의정부시무용단장을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재춤을 통해 한국 타악기와 리듬, 장단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실시하는 인형음악극 학교는 인형극 기술에 대한 습득이나 예술적 체험을 뛰어넘어 부모와 아이가 함께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부모반과 아이반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인형을 직접 제작하고 조종한다. 참가자들은 인형에게 직접 움직임을 부여하고 그 움직임을 인형을 생각하게 하고 이로써 심장과 영혼을 갖게 된 인형은 다양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웃고 울고, 걷고 뛰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예술의전당(828-582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문화관광부장관기 회통한국무용제 전국대회

10월7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서 개최

(사)한국무용협회 의정부시지부(지부장 이미숙)는 오는 10월7일 일요일 오전9시부터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9회 회통한국무용제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무용을 전공하고자 하는 초·중·고·대학생과 무용 전공인들의 무용예술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무용예술인 육성과 보급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비롯해 경기도지사상, 한국예총회장상, 국회의원상과 1천500여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 및 일반인은 오는 10월5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참가신청서는 다음카페(http://cafe.daum.net/ut4uchoom)

기본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참가종목은 초등부 저학년과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어 한국무용과 외국무용부이며 대학생 및 일반부는 국가지정 문화재춤과 각 시도지정 문화재춤, 기타 전통춤으로 보존, 계승되고 있는 춤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시상식은 당일 경연대회 후 개최되며 엄격한 심사와 대회 후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의정부시가 후원하고 포천신문사가 협찬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무용협회 의정부시지부(031-877-8891)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科學으로 未來를 여는 열린 도서관

의정부과학도서관 10월10일 開館기념식

의정부시 지식정보센터는 오는 10월10일 오후3시 시민의 날을 맞아 의정부과학도서관 개관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식전행사로 과학도서관 개관을 알리는 대포 타격을 시작으로 퓨전 공연과 함께 개막식이 이어진다. 개막식에서는 과학도서관 건립에 공적이 있는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수여, 개관 기념사, 축사, 제막식, 테이프 커팅, 시설관람 등으로 이루어진다.

식후행사로 유명 미술사의 미술소를 비롯하여 과학도서관 개관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학도서관 지상1층엔 폼나무실과 늘푸른실, 디지털정보실을 갖추고 있으며, 2층엔 인문과학실, 정기간행물 코너, 소모임 세미나실, 멀티미디어 교육실을 운영한다. 3층은 자연과학실, 청소년자료실, 그리고 전체우주체험실을 갖추어 과학도서관으로서의 특화된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전체우주체험실은 지역의 청소년 및 시민이 능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공간으로서 체험과 놀이를 통하여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천문학과 우주과학의 기초지식 전달 등으로 지역의 과학인재 양성과 과학생 활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도서관의 특화된 공간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정부과학도서관은 어디서든 자료열람과 학습이 가능한 공간

구성으로 독서실 기능의 역할 중심으로 정보자료제공 서비스에 무게 중심을 두기 위하여 자료열람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의정부과학도서관은 경기북부의 대표도서관임은 물론 선진 도서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과학도서관의 이용대상 및 지역은 제한이 없고, 이용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10시까지 자료열람 및 학습이 가능하며, 휴관일은 매주 금요일 및 법정 공휴일이다.

“과학으로 미래를 여는 열린도서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의정부과학도서관은 의정부시의 교육, 과학, 문화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의정부시의 미래를 여는 종합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 지식정보센터는 오는 10월10일 오후3시 시민의 날을 맞아 의정부과학도서관 개관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미숙의 전통춤 이야기 17 호남살풀이춤(湖南살풀이춤)

맏고 풀고 얼르는 묘미와 고도의 절제미 특징

호남살풀이춤(湖南살풀이춤)은 1990년3월29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춤이다. 전북무용의 뿌리는 주로 기방무(妓房舞)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호남살풀이춤 역시 그러하다.

특히 최정철(예명 최선)의 살풀이춤은 스승으로부터 배운 수견춤을 오랜 세월동안 무대화로서 승화시킨 춤이라 하였다. 그의 춤은 한(恨)의 정서가 짙게 깔려 있으며, 맏고 풀고 얼르는 묘미와 함께 고도의 절제미는 춤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최정철은 1945년 10세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하여 1946년에는 김미화 무용연구소에 입소, 1952년부터 추월 선생 및 정인방선생으로부터 호남살풀이춤 사사,

1960년에는 전주 도립극장에서 처음으로 무용발표회 개최, 1961년에는 최선 무용연구소 개설과 함께 수 차례에 걸친 무용발표회 및 세계 각국의 무용 순회공연을 두루 있는데, 호남살풀이춤 역시 그러하다.

현재는 전수관 및 여러 대학의 출강을 통하여 춤의 전수를 위해 제자를 양성하는데 헌신의 힘을 쏟고 있어 명무(名舞)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문의: 의정부시무용단 031-877-8891
이미숙 단장

